

담 북

열아홉번째 이야기



시린 땅 속 들녘에 바람 한줄 풀어 놓습니다.

창조주여, 저는 꽃을 피울수 있을까요?

Damen

비밀의 정원



내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마다
앞에 놓인 계단은 더 높아져 갔고

한숨은 구름이 되어 하늘을 가렸다.

보이지 않는 너머에 갈증을 느꼈으나
시린 땅에서도 늘 꽃이 피어나더라.

하늘에 닿지 않아도 아름답더라.

〈 오래 혼자였던 마음이 마음에게 〉

*

우리 모두는 꽃이고, 나무이기에
이 곳 들녘에 바람 한 줌 풀어 놓습니다.

< 1 부, 담 론 >

영화, 미술, 음악을 통해 소소하지만
시대를 관통하는 주제의 담론을 나눕니다.
나의 생각이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,
그 자체가 놀라운 경험이고 기적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.

< 2 부, 책 >

초대 담인이 선정한 책,
담북이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토크형 진행
문화·예술인들이 선정한 이유있는 책을 읽고
그림 속으로, 음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

< 3 부, 담인·강연 >

열한분의 각 분야별 문화·예술인들의 목소리를
열한가지의 색으로 들어보려 합니다.

*

종교·인문학자, 배철현
동양화 작가, 홍푸르메
천문학자, 이명현
시인, 정호승
아난티 건축가, 민성진
철학과 문학, 서동욱
사진작가, 김홍희
글쓰기, 림태주
물리학자, 정하웅
클래식해설가, 나성인
미술이야기, (前)시립미술관관장 김영순



PM 5:30 ~ 6:30

*

저녁 만찬

마주앉아 밥을 먹는다.

흔하디 흔한것

동시에 최고의것

가로되 사랑이어라.



PM 6:30 ~ 8:00

**

"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."

< 담론 >

소소하지만 시대를 함께 관통하는 주제의 담론을 나눕니다.
나의 생각이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,
그 자체가 놀라운 경험이고 기적이 되는 시간

< 초대 담인이 선정한 책과, 담북에서 선정한 책 >

책은 삶을 바꾸지 않지만
마음의 위치를 0.5 센티미터정도 살짝 옮겨주는 힘이 있습니다.
책은 확실히 삶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해줍니다.



PM 8:00 ~ 8:10

쉬어가는 시간

대화가 이어지는 한 우리의 관계는 살아 움직입니다.

담론과 펼쳐놓은 책을 잠시 덮고
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.



PM 8:10 ~ 9:30

삶과 예술의 공존
(담談 인)

농업이든, 상업이든, 문학이든, 예술이든
사치스러운 생활에서 나온 열매는 사치일 뿐입니다.

잘 알려진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가까이서 묵묵히
자신만의 철학을 지니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바로 일상을 예술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.

그분들의 정직한 목소리로 삶의 정수를 듣고 나눕니다.



대 상 책을 읽고, 사색에 잠기며, 일상의 예술을 꿈꾸시는 분

기 간 2019. 02. 19 - 2019. 05. 07 (12주 과정)

장 소 서울 웨스턴 조선포텔 튜립홀

인 원 서른분

시 간 매 주 화요일 오후 5:30 ~ 9:30
(오후 5:30 ~ 6:30 저녁식사)

교육비 500만원 (부가세 별도)
762301-04-279051 국민은행 (담북)
(우선 입금순 회원확정 양지 바랍니다.)

문 의 문 예 슬 팀장
H.P 010. 8660. 1979
Mail dammbook@naver.com

...

위대한 삶을 지향하는 자는 시간을 장악한다.

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집중한다.

일상에서의 저녁은 아침만큼 기록하다.

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

그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.

< 배철현, 수련 中 >